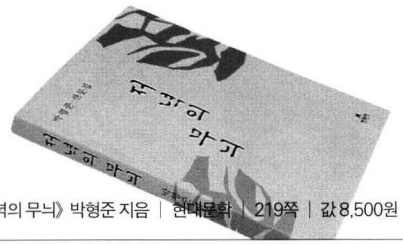


저녁, 빈방, 틈, 소멸, 죽음, 흔적에 대한 시인의 시선視線, 저보다 먼저 오는 빛을 발견하다



《저녁의 무늬》 박형준 지음 | 현대문학 | 219쪽 | 값 8,500원

해가 질 무렵부터 밤이 되기까지의 시간적 공간이 '저녁'이다. 프랑스에서는 사물의 윤곽과 경계가 흐려지는 그 시간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고도 부른다. 시인 박형준 씨(37)는 산문집 《저녁의 무늬》를 통해 비밀스런 무늬로 직조된 소멸의 시간이 저녁임을 들려준다. 그의 첫 산문집이기도 한 《저녁의 무늬》에는 시詩가 되거나 되지 못했거나, 혹은 시에게서 얻어온 서른일곱 편의 산문이 담겨 있다.

“오래 전부터 산문을 써보고 싶었습니다. 시라는 것이 '순수의 결정체'이기도 하지만, 서사라는 불순물을 집어넣을 때 파생되는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산문쓰기에 대한 미혹은 거기서 비롯되었습니다. 산문집에 실린 산문들은 그동안 제가 써온 시들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저녁, 빈방, 틈, 소멸, 죽음, 그리고 흔적에 대한 사유의 기록입니다. 호흡과 문체가 일정한 산문집을 갖고 싶어, 태작이다 싶은 작품들은 버리고 손을 보았습니다.”

그는 산문집의 각 장마다 '빈방', '수면의 빛', '옴팍집', '풀잎 우물'이란 서정적 시감詩感의 제목을 붙였는데, 1장은 그가 현재 사유하고 있는 것을, 2장은 흔적이나 자취에 관한 기록을, 3장은 그러한 흔적들과 자취의 원적지를, 4장은 문학에 대한 사유와 단상을 담아 두었다.

산문집 곳곳에서 드러나지만 그는 지독한 '테레비 생활자'이다. 풍경의 날 것 이미지가 사라진 도회지 인천으로 옮겨 온 어린 시절 이후 그의 유일한 낙은 '테레비' 보기였다. 삶의 단편을 은유화



한 '동물의 왕국'은 그가 지금까지도 애청하는 프로그램. 그러나 그는 최근 '인터넷 생활자'로 바뀌었음을 고백한다. 이곳저곳 그저 기웃거리기 좋아하는데 즐겨 하는 게임이 있다면 바로 '인터넷 장기'다. 소설과 닮아 공간을 창출하는 '바둑'보다는 운명지어진 제 길을 따라 승부를 거는 '장기'가 그에게 더 잘 맞다. 지금까지 2천 판 가까이 장기를 두었고, 승률은 5할을 조금 못 미치지만 급수로는 2급을 자랑한다. 시에 대한 그의 열정을 보는 듯하다.

“나이 마흔이 넘으면 한 권의 산문집을 더 갖고 싶습니다. 그때는 어떤 틀에 구애받지 않는 글쓰기가 되었으면 해요. 예를 들어 어머니란 존재를 말할 때도 어머니 삶에 구애받지 않는 객관적인 글 말입니다. 시집은 3~4년 뒤에 묶어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집의 이미지가 물이었다

면 신작시집의 이미지는 빛이 될 듯합니다. 빛은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혹은 생각만큼의 속도로 다가옵니다. 어디에 갇혀진 빛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빛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저녁의 무늬를 아로새기며 산문미학의 정수를 보여준 그의 작업이 빛으로 이어진다. '작가의 말'을 통해 엿본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빛 역시 생성의 개념으로서의 빛이 아니다. 그가 지금껏 관심을 갖고 작업한 소멸과 흔적의 연장선상에 있는 주체물이 또한 빛이다. 것처럼 한 세계에 천착하는 일이 진저리칠 만큼 아득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지리멸렬支離滅裂해질 때면, 그는 자신 앞에 다른 세계가 놓여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편, 박형준 시인의 비밀스런 다른 세계가 조금은 '더-더-게' 왔으면 한다. **☞**

취재 박용두 기자·사진 박신우 기자